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셋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를 찾고 계신다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1 - 감사와 회개의 기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니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했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보다는 짜증과 불평을 먼저 내보인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구했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 속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해이해졌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섬김에도 소극적이 되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한 주간과 다가올 9월도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2 -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네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름휴가철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가을 사역을 계획하는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주소서. 여름 기간 동안 수고하시며 성도들을 돌보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텐데, 새로운 힘과 비전을 주시고 가을 사역을 위한 준비에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심이 되어 주소소서. 또한 각 부서와 교구의 리더들에게도 섬김의 마음과 봉사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소소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주시고,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소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돌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3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상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와 독립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속되는 남북 분단의 아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리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소소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 평화통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이끌어 주소소서. 무엇보다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4 -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달여의 여름 기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제 새 학기와 가을을 준비하는 바쁜 일정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름휴가 이후 업무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열어주옵소서. 또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교육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인격과 신앙 성장을 위해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건강한 소통과 신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5 -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현지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후원교회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온라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열어주옵소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전도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고, SNS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학교, 동네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예배 자료와 기도문을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